

초록번호 08-4

제 목	국 문	인삼복용과 폐암발생에 관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연구		
	영 문	Nested case-control study for Ginseng and lung cancer in Kangwha cohor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영삼 ¹⁾ , 박웅섭 ²⁾ , 신용환 ³⁾ , 송금숙 ³⁾ , 지선하 ³⁾ , 오희철 ²⁾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¹⁾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²⁾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³⁾		
	영 문	Yong-Sam Kim ¹⁾ , Woong-Sub Park ²⁾ , Yong-Hwan Sin ³⁾ , Keum-Suk Song ³⁾ , Sun Ha Jee ³⁾ , HeeChoul Ohrr 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¹⁾ , and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²⁾ , Collage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³⁾ , Yonsei University		
분 야	역학		발 표 자	박웅섭
발 표 형식	구연		발 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8년 12월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985년 연세의대 예방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만든 '강화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여 인삼복용이 폐암에 예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강화 코호트'는 1985년 2월 28일 당시 주민등록상 강화도 본도 10개읍면에 등록되고 가입된 의료보장형태가 지역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이면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사람중 건강에 대한 면접과 신체검사를 1985년 3월에 실시할 수 있었던 6,364명을 대상으로 1997년까지 사망과 질병력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설계는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로서 환자군은 지난 12년 추적기간동안 폐암으로 확인된 환자 14명 및 사망자 69명 83명이고, 다음과 같이 4종류의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첫째,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둘째,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셋째, 생존자 중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넷째, 폐암 이외의 암에 걸린 사람. 폐암 이외의 암에 걸린 사람의 대조군을 제외한 각 대조군은 환자군의 연령으로 1:4 짹짓기 하여 332명씩 무작위 선정하였으며, 폐암 이외의 암에 걸린 사람의 대조군은 전수를 선정하여, 폐암발생과 조사된 변수들을 단변량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및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단변량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변수들과 폐암발생 여부에 대한 conditional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각 대조군별 분석결과는 표와 같다.

표. 대조군별 폐암발생 여부에 대한 단변량 분석결과

변 수	비차비 (95%신뢰구간)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성별 (남성)	5.81 (2.65 - 12.77)
흡연 여부	2.43 (1.28 - 4.62)
인삼복용 여부	0.61 (0.35 - 1.06)
숨찬증상 유무	3.31 (1.22 - 9.00)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성별 (남성)	7.66 (3.52 - 16.68)
흡연 여부	2.79 (1.45 - 5.39)
인삼복용 여부	0.49 (0.26 - 0.91)
숨찬증상 유무	2.63 (0.96 - 7.23)
생존자 중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성별 (남성)	7.19 (3.26 - 15.88)
흡연 여부	2.48 (1.24 - 4.95)
인삼복용 여부	0.50 (0.28 - 0.91)
숨찬증상 유무	3.61 (1.19 - 10.91)
다른 암에 걸린 사람*	
성별 (남성)	3.08 (1.45 - 6.55)
흡연 여부	2.06 (1.08 - 3.93)
인삼복용 여부	0.49 (0.29 - 0.82)
숨찬증상 유무	2.24 (0.94 - 5.32)

* 연령을 보정한 로지스틱 분석결과임

4. 고찰

본 연구는 환자군의 수가 83명에 불과하여 검정력이 크지 않으며, 각 독립변수의 측정수준이 낮아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진 위험요인과 인삼에 대한 비차비가 4종류의 대조군 모두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강하고 인삼이 폐암발생에 예방적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